

조규일 화백 가족의 '특별한 전시회'



19일 가족전을 앞둔 조규일(왼쪽) 화백과 아들 조현씨.



조규일 작 '이원(梨園)'

“전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가족이 다 같이 예술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전시회까지 열게 돼 자랑스럽네요.”

14일 만난 백민 조규일(82) 화백은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전시를 앞두고 뿌듯함부터 내비쳤다. 조 화백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19일부터 5월1일까지 '백민 조규일 예가'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조 화백 뿐 아니라 장남 조현(52), 차남 조술(51)·박민광(48) 부부가 함께한다.

조 화백은 “호남지역은 그동안 김환기, 천경자 등 대가들이 많음에도 미술사가 제대로 정립 안된 상황이었다”며 “이렇게 가족전을 여는 것은 전국에서도 드문 일이고 미술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화백은 슬하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조현씨는 서양화가로 활동하며 현재 보성군립 백민미술관 관장직을 맡고 있다. 조술·박민광 내외는 전남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레핀 미술아카데미에서 나란히 유학한 뒤 광주에서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잡지사에 근무하는 막내딸 조미나(44)씨만 붓 대신 펜을 들었다.

조 화백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전업 작가는 가

아들 현·술, 며느리 박민광 작가와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가족전 19일~5월1일...24일 전시 개막식 “80살 넘어서니 그림 맛 알 것 같아 다함께 예술해서 행복하고 뿌듯”

난하고 고달팠다. 아들들이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자 내키지 않았지만 말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막내딸은 말했다. 이렇게 가족전을 열게 될 줄 알았으면 딸도 그림을 시킬 걸 그랬다”고 농담 섞어 말했다.

조현 관장은 “지난해 시립미술관에서 가족전을 열자는 말을 듣고 꽤 부담이 됐었다”며 “지난 1년간 동생 내외와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 조 화백 가족은 서양화 60여점, 조각 20여점을 선보인다. 조 화백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린 자화상(1951)부터 최근작 ‘남국의 여인’(2015)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작품 40여점을 출품했다.

조 화백 작품은 크게 1980년대 전후로 나뉜다. 80년대 이전에는 주로 풍성한 빛에 둘러싸인 남도 지역 산, 들, 바다를 화폭에 담았다. 1954년 조선대 미술학과에 입학한 그는 당시 교수로 재직했던 오지호(1905~1982) 화백 문하에서 회화를 배우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오 화백의 수제자로 꼽히는 그는 밝고 맑은 남도 풍광을 즐겨 그렸던 스승을 따라 빛을 근간으로 한 한국적인 미를 보여준다. 오 화백은 제자에게 “천란하게 빛나는 백제 백성”이란 뜻을 지닌 아호 ‘백민(百民)’을 내려주기도 했다.

스승 가르침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조 화백은 1980년대부터 풍경에 이어 인물에 집중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인과 꽃이다’는 지론 아래 여체와 꽃을 함께 그렸다. 여체 곡선을 아름답게 표현한 ‘나무’(1984) 연작부터 ‘벚꽃여인’(2012), ‘남국의 여인’(2015) 등은 까만 눈동자가 매력적이다. 또 벚꽃과 드레스를 입은 김연아가 등장하는 ‘김연아의 꿈’(2014)도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다.

장남 조현씨가 출품한 작품 20여점은 청색과 황토색을 주로 사용하며 아버지 작품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골목길’(2015) 연작은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통해 고된 삶을 살지만 작은 희망을 품고 있는 현대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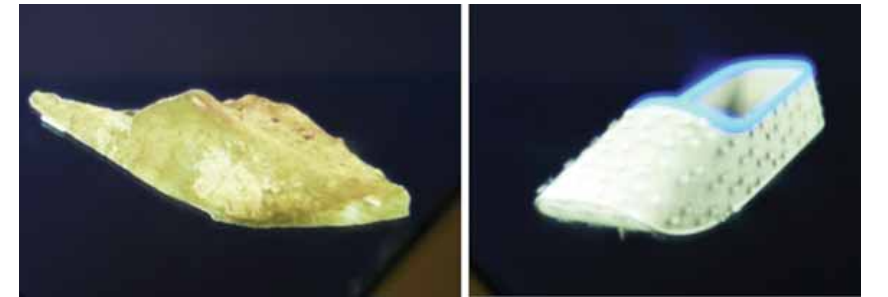
조술·박민광 부부는 각각 여체를 형상화한 조소작품 10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들 작품은 조 화백이 주로 그린 여인 누드와 닮은꼴이 특징이다. 러시아에서 사실적인 인체해석을 배운 조술씨는 새, 꽃, 나비 등과 함께 몸이 접촉하는 남녀를 작품에 등장시켰다.

박민광씨도 조술씨와 궤를 같이 한다. 여인과 꽃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꽃을 통해 아름다움과 욕망을 동시에 드러낸다. 여체는 어딘지 모르게 조 화백 속 여인과 닮았다. 조 화백은 “80살이 넘어 이제야 작품 맛을 알겠다”며 “여전히 그림 그리는 일이 즐겁고 작품활동도 꾸준히 할 생각이다”며 미술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한편 전시 개막식은 24일 오후 5시 상록전시관에서 열린다. 개막식에는 오지호 화백의 장남이자 조 화백과 친분이 깊은 오승우(86) 화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539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조현 작 '골목길'



마한 금동신발 3D 홀로그램 체험전

GIST 복원...국립나주박물관 15~20일

지난 2014년 나주 다시면 정촌교본에서 출토된 백제계 금동신발이 3D 홀로그램으로 재탄생한다. 1500여 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신발은 앞부분에 장식된 용이 남아 있는 등 보존 상태가 완벽해 주목을 끌었다.

“마한 금동신발 홀로그램 체험전”이 15일부터 20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GIST(광주과학기술원) 산하 한국문화기술연구소(KCTI)가 고대 유물을 극사실적으로 복원한 실감 미디어 전시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구소는 홀로그램 형태로 유물을 복

원하기 위해 GIST 기전공학부 이관행 교수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이 교수팀 등이 개발한 복합 재질 측정 장치로 마한시대 금동신발 유물을 촬영, 고품질 3D 데이터를 획득하고 생생한 형상과 재질을 홀로그램으로 복원했다.

또 고대 해양 문화를 상징하는 박유진 작가(섬유공예가)의 물고기 작품 ‘마하니’와 금동신발 물고기 장식을 홀로그램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시스템으로 구현한 작품도 전시된다. 문의 062-715-4925. /김용희기자 kimyh@



'빛의 산책' 시안.

광주비엔날레 광주폴리III '뻔뻔폴리'

진시영·김찬중팀 '빛의 산책' 당선

설계·제작비 1억7000만원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지난 4일까지 진행한 광주폴리III '뻔뻔폴리' 현상 공모에 진시영(미디어아티스트)·김찬중(건축가)팀이 선정됐다. '뻔뻔폴리'는 지난해 진행된 일반인 대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 중 하나를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로 총 8개 초청팀이 경쟁했다.

진시영·김찬중팀은 '빛의 산책'을 주제로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당선작은 도심 건물 사이 작은 문들 뒤에 작품을 설치하자는 당시 최우수상 'Folly as Urban Library' 아이디어를

활용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건물 8곳에 LED전광판과 빛, 사운드를 접목한 미디어아트 작품 설치를 기획·설계했다. 기존 구조적인 형태를 탈피한 콘테츠가 강화된 작품으로 의외성과 참여성, 도심 공간 활용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팀에게는 작품 제작·설치권이 부여되며 설계비 2000만원, 제작·설치비 1억5000만원이 수여된다.

'도시의 일상성 : 맛과 멋' 주제로 진행된 3차 폴리는 문화전당 주변으로 총 4개가 설치된다. 총 참여작가는 다음 달 8일 '광주폴리III 참여작가 워크숍' 때 발표된다. 문의 062-608-426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